

금산인삼농협조합장



• 박천정 금산조합장 약력

1. 금산문화원 이사(전) (1990. 1.5 ~ 1995.5.30)
2. 금산장학회장(전) (2001.1.5 ~ 2004. 5. 30)
3. 충남일보사부회장 (1988.10.1~2001.10.30)
4.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 이사
(2001.5.10~2005.3.30)
5. 인삼포럼이사 (2004. 12.30~)
6. 한국인삼농민협의회 감사 (2004.1.5~)
7. 금산군재향군인회 회장 (2002.2.1~)
8. 평통자문위원 (2005.9.1~)

Q & A

박 · 천 · 정



신임 금산인삼조합장은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는 금산인삼조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금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평판을 인정받는 인물이고, 특히 박 조합장은 언론계, 인삼업계, 장학사업 및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전형적인 행정가의 면도를 유감없이 발휘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금요일) 금산다락원에서 금산인삼조합의 조합장 선출자 발표를 하였는데 신임 금산인삼조합장으로 박천정(56세) 현 금산군 재향군인회 회장이 당선되었다.

〈편집자주〉

Q 지난번 금산인삼농협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새 집행부를 선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포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지난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마비되고 금산인삼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짓밟혀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불행을 거울삼아 두 번 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인삼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금산인삼농협의 화려했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금산인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금산인삼에 관계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마다하지 않고 금산인삼조합 여러분



박 · 천 · 정

결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슬기로운 지혜와 황소 같은 우직한 힘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견인자가 되어 조합원 여러분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Q 취임이후에 2005.9.2(금) - 9.11(일) (10일간) 제25회 금산인삼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A 금산인삼축제는 전통의 풍류와 현대적인 멋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과 역사 및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감동의 축제입니다.

더욱이 2006년도에는 금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삼 Expo”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준공과 아울러 더욱 더 내실있는 “세계 인삼 Expo”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스페인 작은 마을에서 Tomato축제를 열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세계인의 축제를 만든것을 볼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의 특산물인 인삼축제는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중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건강 Wellbeing-Tour라는 테마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인삼주’가 지난 2000년 10월 아셈정상회

의에서 각국정상들의 공식 건배주로 지정된것을 예로 들듯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농협에서 나온 제품인 ‘삼지원’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이 투명하고, 좋은 원료만을 직접 엄선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전략품 개발 및 내수시장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Q WTO 체제 출범과 최근 한·칠레 FTA 협정체결로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삼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 이미 농산물 수입 개방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책 없이 개방할 경우 지금의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자체가 너무 취약해 농업계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계가 서둘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인삼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이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은 특히 화교들은 ‘고려인삼은 신비

한 명약'이라는 약효에 대한 믿음이 있어 수출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을 수출함에 있어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가공해야 합니다. 외국 소비자의 경우 37.5g, 75g, 150g씩 소포장 단위로 인삼을 사는데 한국에서 내보내는 인삼은 국경감사규정에 따라 300g, 600g씩 포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다시 그것을 재가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구입하기를 꺼려합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삼의 부가세가 감면 또는 철폐 되어야 한다.

외국의 수출만큼 인삼의 국내산업도 중요합니다. 밀수삼의 유입으로 인삼농가가 타격을 받고 더욱이 이것이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삼제품에 쓰이는 원료의 "원료삼 검사제도"와 "생산이력제"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인삼정책 부처가 농림부, 식품의약품 안정청, 보건사회부로 다원화 되어있어 정책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삼정책 부처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2006년도 금산인삼 조합의 사업계획과 중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내년도 중점사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사업 부문, 둘째는 신용사업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사업부문은

- ① 수출전략품 개발 및 내수시장 확대
- ② 인삼류 가공사업의 지속적인 신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
- ③ 경작인 중심의 인삼류 직거래 사업추진

④ 공격적 해외 시장 개척 구상무역을 통한 시장 개척

⑤ 구매사업 혁신으로 농가의 실익증대

⑥ 경작기술지도를 병행한 지도구매 전환

⑦ 직거래장터를 통한 경작인 수익증대

둘째 신용사업부문은

①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정착

② 상호금융 증대 및 영업기반 확충

③ 상호금융 경영건전성 제고

④ 수익중심의 상호금융사업 추진

⑤ 공제사업 농업인 계약자 서비스 확대

⑥ 농가의 금융편익을 위한 보증지원확대(신용보증)

⑦ 상호금융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Q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녀분들은 몇이나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A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농림부나 농협 등 유관단체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면을 빌어 말씀해 주시고, 건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좋은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만 농림부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 즉 생산자를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으며, 인삼 관련업계, 유통업자, 관계, 학계, 수출업자 모두 한국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 난국을 타계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산인삼농협 ++++++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충도리 16-2
- 전화 : 041-754-8192
- 홈페이지 : www.kinsam.net

금산인삼농협 조합장 취임사++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저희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동철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의회 의장님, 의원님, 각급 기관장님, 사회단체장님, 원근각지에서 오신 조합장님, 선배, 후배, 친구, 가족,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 의해 선출되어 새로운 인연으로 상면을 하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금산인삼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한다는 기쁨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과 조합, 인삼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중압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저는 새천년의 경영철학으로 숙명적인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다각적인 검토와 슬기로운 대처 활동으로 자립조합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사사로운 정이나 감정으로 경영을 그릇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구촌 70억 인구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인류의 영약, 신비의 약초, 하늘이 내려주신 고귀한 인삼을 취급하는 행복한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해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으며 금산인삼의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해야 할 여러분은 수치심과 분노의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불행을 거울삼아 두 번 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인삼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금산인삼농협의 화려했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금산인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이며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 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금산인삼에 관계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슬기로운 지혜와 황소같은 우직한 힘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견인차가 되어 조합원 여러분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